

유전자와 대학입시

성기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센터 소장)
월간조선 91.2.

나는 成씨라는 성으로 태어났지만 내 어머니는 상산 金씨이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는 그 절반만이 成씨 것이고 나머지 2분의1은 상산 金씨 것이다. 할아버지 대까지 올라가서 생각하면 할머니가 洪씨이고 외할머니는 李씨니까 나는 成씨, 洪씨, 金씨, 李씨로부터 각각 4분의 1씩의 유전자를 받아 구성되어 있다. 즉 2대 조상만 생각해도 나는 成씨의 유전자를 2의 2승분의 1, 즉 4분의 1밖에 계승하지 못했고 成씨끼리는 혼인하지 않았으니까 20대 조상까지 생각하면 2의 20승분의 1, 즉 약 1백만분의 1만이 成씨의 유전자로서 내 몸 속에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내 20대 조상은 1백만명이나 되고 그들의 대부분은 成씨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논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열다섯살 때 결혼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이다. 옛날 분들은 조혼해서 6남매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 한 세대를 20년으로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대 조상들이 살던 시대는 4백년 전이고 바로 임진왜란 때쯤이 된다. 그 당시 우리나라 총인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임진왜란 때문에 1백만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1백만명이라고 가정하자.

지금 남쪽에 4천만, 북쪽에 2천만 합쳐서 6천만명인데, 이 모두가 金씨든, 李씨든, 朴씨든 성씨에 관계없이 임진왜란 때의 1백만명의 공통의 조상들의 유전자를 계승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6천만 동포의 어느 누구와도 성씨와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40촌 미만의 친인척이다. 나만 특별한 사람이고 좋은 가문에서 기적의 유전자 조합을 갖고 태어났다는 궁지는 6천만 동포 모두가 가져도 된다. C씨 성은 어떤 성질이 있고 J씨 성은 무엇을 잘하며 무슨 지역 사람은 어떻다는 등의 속담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현재의 J씨가 4백년 전의 J씨의 성질을 1백만분의 1밖에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문과 유전자의 관계가 이같이 희미하다면 어떤

가문에서 선비가 많이 났다든가 아무개 가문은 무관집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타고난 선천적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을 도와주고 그것에 알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중에서 시대와 지리에 맞는 좋은 교육제도를 마련해주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내신성적 1등급이 되도록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만능 암기선수가 되도록 들볶아서는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의고사 점수에 맞춰서 전공분야를 1지방 C대학 기계공학, 2지방 C대학 화학과 식으로 적어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젊은이들의 적성개발에 역행하고 있다. 입시제도는 미국처럼 각 대학이 알아서 하는 것이 최상이다. 미국이 건국 2백년만에 1등 강국이 되는 과정중에 문교부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급증도 유전자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제도의 결함에 주된 원인이 있다. 1인당 수출이나 1인당 소득면에서 우리보다 2배나 앞서가고 있는 대만의 경우, 그 성장의 원천이 선천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제도의 차이, 금융제도의 차이 등 후천적 요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대학이 대학인이 아닌 행정관료의 획일적 통제하에 놓여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학을 대학인에게 맡기면, 그리고 은행을 재벌에게 맡기면, 당장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행정관료의 지배체제를 한없이 계속자는 주장과 같다. 재벌은 안된다라는 약방감초는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어차피 외국재벌은 된다는 부딪쳐 효용이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의 명문대학들이 한국에 분교를 만들었다면 대학도 3차산업인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차라리 모든 재벌과 국영기업이 환경침해여부로 말쑥 많은 골프장 60개 대신 그 자리에 포항공대 같은 세계적 명문대학을 한개씩 만들어 외국기술·외국지식산업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은행뿐 아니라 방송사까지도 재벌을 포함해서 누구나 만들고 소유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그것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쯤되면 한국 사람은 안된다는 민족열등론이 나오는데 우리의 유전자 조합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은 40촌 미만의 친인척인 관료들이 유전자가 더 우수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웃기는 이야기다. 경제가 잘 안될 때마다 기업인 탓, 아니면 노동자 탓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입시과열 현상이 교육자나 학부모 탓이 아닌 것처럼 정말 탓해야 할 것은 행정만능을 신봉하는 관료주의의 횡포이다. 모든 것을 그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면 한민족의 타고난 잠재능력은 폭발적으로 발휘되어 세계만방으로 뻗어나갈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